

유럽 빅리그서 뛰는 '韓 중앙수비수' 이제는 나올까

‘간판 센터백’ 김민재 향한 유럽 구단 관심 줄이어

홍명보 “도전해 좋은 길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 응원

한국의 축구선수가 축구의 본 고장인 유럽 무대에 진출하는 것은 ‘꿈’에 가까운 시절이 있었다.

1978년부터 1989년까지 독일 분데스리가를 누볐던 개혁자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은 “아시아에서는 잘 한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세계에는 나보다 잘하는 선수들이 널려 있었다. 언젠가부터 나도 저기서(유럽) 축구를 한 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품었다”면서 “독일에 간 뒤 나는 토요일이 다가올 때마다 경기에 나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두려웠다. 매 라운드 가 그랬다. 그렇게 10년을 보냈다”는 고백을 전한 바 있다. 그렇게 동경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차범근과 허정무가 돌을 건너내고 박지성과 이영표와 안정환이 풀을 치우고 기성용과 이청용이 길을 넓힌 덕분에 지금은 손흥민, 황희찬, 황의조, 이강인 등이 세계 언론의 칭찬을 받는 상황까지 진척됐다. 더 이상 꿈이 아니라 현실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백’ 처럼 느껴지는 일이 있다. 한국의 중앙 수비수가 유럽 빅리그에서 세계적인 공격수들을 막아내는 모습은 2020년인 지금도 비현실적이다. 그런데 조만간 새 페이지가 펼쳐질 공산이 적잖다.

축구대표팀의 간판 센터백 김민재(24)를 향한 유럽 구단들의 관심이 줄어 있고 있다. 지난 14일 포르투갈 매체 아블라가

“FC포르투가 김민재 영입을 추진 중”이라며 “김민재의 소속팀 베이징은 이적료로 1500만유로(약 200억원)를 원하고 있다. 포르투는 포르투갈 출신의 파울루 벤투 한국대표팀 감독을 김민재를 설득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것이 시발점이었다.

이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에버튼, 왓포드, 아스널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현지발 기사들이 이어졌다. 영국의 가디언은 “에버튼이 EPL 진출을 원하는 김민재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김민재는 한국 대표로 30경기에 출전했고 빠른 발과 롱 패스, 경기를 읽는 시야와 공격성 등으로 좋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 분데스리가의 라이프치히, 이탈리아 세리에A의 AC밀란, 네덜란드 에레디비지에의 에인트호번 등 다양한 리그, 클럽들이 김민재를 바라보고 있다. 관계자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실질적 러브콜”이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가능성이 커 보이는 상황인데, 만약 김민재가 유럽 무대에 나서게 된다면 유례를 찾기 힘든 이적료가 세워지게 된다.

유럽파가 많이 늘어났으나 한국 축구사를 통틀어 중앙수비수의 진출은 너무 드물다. 2001년 독일 아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에서 뛰었던 삼재원, 2013년 역시 독일의 아우크스부르크에 입단한 홍정호 정도가 떠오르는데 두 선수 모두 ‘성공’이라 부르

긴 어려운 활약상이었다.

관련해 박문성 해설위원은 “유럽에 진출한 센터백 성공사례는 없었다고 봐야한다. 중앙수비수 뿐 아니라, 미드필더든 공격수든 ‘센터’가 앞에 붙는 포지션은 쉽지 않았다”면서 “중앙 미드필더나 센터포워드처럼 가운데 라인이 힘든 것은 압박 강도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이다. 측면에서는 빠르게 치고 달리는 등 한국 선수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는데 중앙은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유럽 선수들의 힘싸움을 버텨낼 수 있을 포지션을 갖추는 것도 어려웠고 후방의 통솔을 위해 수시로 동료들과 소통해야 하는 특성상 그네들의 언어를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장벽이었다. 최근에는 ‘빌드업’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수비수들 역시 ‘발 밑’이 강해야 한다는 것도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이런 어려움을 뚫고 김민재가 유럽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새로운 역사가 가능할 분위기다. 도전 자체로 작중은 의미가 있는 일이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수비수였던 홍명보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는 “한국의 중앙 수비수들이 큰 무대에 나간 경우도 드물고 특히 성공한 경우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도 김민재가 도전해서 좋은 길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응원을 보냈다.

박문성 해설위원은 “기성용이 중앙MF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나 센터포지션에서 성공한 경우는 드물다”면서 “김민재가 유럽에서 성공하게 된다면 한국 축구의 새로운 획을 긋는 것이다. 김민재도 축구 팬들도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김민재(왼쪽)와 손흥민

롯데 손아섭 · 한화 이용규, 1000득점 달성 ‘동시 도전’

손아섭, 최연소 · 롯데 소속 최초 기록 앞뒤



롯데 자이언츠 손아섭(32)과 한화 이용규(35)가 KBO리그 역대 16번째 1000득점 달성에 나란히 도전한다.

22일 현재 손아섭과 이용규는 1000득점에 모두 6득점을 남겨두고 있다. 2007년 입단한 이후 줄곧 롯데에서만



활약한 프랜차이즈 스타 손아섭은 최연소 1000득점 신기록에도 도전한다. 손아섭은 22일 현재 32세 3개월 4일의 나이로 지난해 최연소로 달성한 SK 와이번스 최정(32세 5개월 26일)을 약 3개월 가량 앞당길 수 있다.

또한 손아섭은 롯데 소속 선수로는 최초로 1000득점 고지 정복을 앞두고 있다.

손아섭은 KBO리그 데뷔 첫 경기였던 2007년 4월 7일 수원 현대 유니콘스전 2득점으로 첫 득점을 기록했다. 이후 2015년 500득점을 달성한 바 있다. 한 시즌 최다 득점은 2016년 기록한 118득점이다.

한화의 주장 이용규는 2004년 4월 16일 LG 트윈스 소속으로 잠실 KIA 타이거즈전에서 첫 득점을 올린 후 2012년 500득점을 돌파했다. 한 시즌 최다 득점은 2016년 기록한 98득점이며, 2012년 KIA에서는 86득점으로 이 부문 1위에 오르기도 했다.

KBO는 손아섭과 이용규가 1000득점을 달성할 경우 표창규정에 의거해 기념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뉴스1



전 메이저리거 강정호가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마친 후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강정호 “첫해 연봉 전액 기부 하고파”

사죄 기자회견…“4년째 금주 중”

강정호(33)가 기자회견을 열고 허리 숙여 사죄했다.

강정호는 23일 서울 상암동 스탠포드 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저지른 음주운전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강정호가 국내 복귀를 선언하면서 열리게 됐다. 강정호가 국내 복귀 뜻을 밝히자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유기실격 1년, 봉사활동 300시간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앞서 강정호는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소속이던 지난 2016년 12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뺨소니 사고를 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 전에 2차례(2009, 2011년) 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삼진아웃제가 적용된 결과였다.

검정 슈트 차림에 검정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자회견장에 등장한 강정호는 먼저 90도로 허리를 숙여 취재진을 향해 인사한 뒤 “워낙 말투변이 없어서 생각한 말들을 잘 전하지 못할 것 같아서 미리 써왔다”며 들고 온 원고를 읽어내었다.

강정호는 “제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어떤 사과의 말씀으로도 부족하지만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2009년, 2011년 음주운전에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지만 무지하게 구단에 걸리지 않으면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2016년에는 심지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정말 나쁜 행동이고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돌이키지 못할 실수를 여러번 했다.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른 채 야구만 바라보고 야구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다. 실력으로 보여주면 되는 줄 알았다. 어리석은 생각으로 책임감 없는 모습으로 실망을 안겨드렸다”고 자신을 돌아봤다.

음주운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과도 있었다. 강정호는 “2018년부터 메이저리그에서 금주 프로그램을 이수했고 4년째 금주하고 있다. 앞으로도 금주를 이어가는 것이 내 목표”라며 “어떤 말로도 잘못을 되돌릴 수 없지만 나 자신을 돌아보며 진실되게 살아가고자 한다”고 사과를 이어갔다.

강정호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구단에서 받아주신다면 첫해 연봉 전액을 기부하겠다. 꾸준히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에 참가하고 기부 활동도 이어가겠다”며 “음주운전을 줄이는데 기여하고 싶고, 은퇴하는 그 순간까지 비시즌에는 재능기부를 하고 야구장 밖에서도 잘못을 갚으며 열심히 봉사하며 살아가겠다”고 설명했다.

영암교육지원청 “학생 선수들 구슬땀 훈련에 격려 · 응원”

영산강 카누 경기장 · 삼호중앙초 체육관 · 영암초 달물 수영장 방문



영암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애)은 지난 22일 관내 운동부 육성학교 소속 학생 선수들의 훈련 현장을 방문하여 격려하고, 학생 선수 경청 올레 시간을 가졌다.

김성애 교육장과 업무 담당자들은 영산강 카누 경기장과 삼호중앙초 체육관, 영암초 달물 수영장을 차례로 방문하여, 코

로나19로 인해 많은 대회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마다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에 전념하고 있는 학생 선수들의 열정과 노력을 응원하였으며, 학생 선수들이 훈련을 하면서 어려운 점, 개선되었으면 하는 것 등을 듣는 학생 선수 경청 올레 시간도 가졌다.

코로나19로 인해 훈련에 제약은 받는 상황에서도 학교에서는 수시 방역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훈련 환경을 갖추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키기로 안전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었다.

김성애 교육장은 훈련 중간 휴식 시간에 학생 선수들과 경청 올레 시간을 가졌으며, 학생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학생들을 격려하고 필요한 물품 지원, 훈련 환경 개선 등을 약속하였다.

영암초 5학년 이○○ 학생은 “등교하기 전에 기초훈련만 할 때는 답답하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했는데, 등교 후 수영장에서 운동부 선수들과 함께 훈련을 하니 정말 즐겁다.”면서, “코치님의 조언을 들으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전국대회에서 수상하는 것이 꿈”이라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영암교육지원청 김성애 교육장은 “학생 선수들의 복지와 선수 인권, 환경 개선 등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학생 선수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역량을 꾸준히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 기자